

글로벌 IB·운용사 및 국제 기구의 ESG 업무 현황

금융투자협회 조사국제부 류정선
(21. 6. 24)

요 약

- **(조사 배경)** 전세계적으로 ESG는 정부 주도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와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임
 -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운용사, ESG 관련 국제기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내 시장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 참고 : 전세계 ESG 투자자산 규모는 '12년 13조3천억달러(1경5천29조원)에서 '20년 40조5천억달러(4경5천765조원)으로 8년 새 3배로 증가
- **(해외 주요 IB·운용사의 ESG 업무 현황)** 글로벌 주요 IB의 ESG 금융상품·서비스 유형은 크게 채권 발행주관·인수, 자산 관리(일임), 프로젝트 금융 등이 있으며 운용사들은 ESG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ESG 상장지수펀드(ETF), 민관인프라펀드, 기후·친환경 펀드, 그린본드 등을 설립·운영
 - **(골드만삭스)** 2030년까지 약 7,500억달러를 지속가능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09년도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 이행을 시작
 - 브로커리지 부문에서는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ESG 투자 전략 개발, ESG 투자자산 시장조성, ESG 포트폴리오 분석 도구 서비스 제공
 - 'Marquee'라는 ESG 고객 포털을 출시('20.10)하여 기관투자자 고객에게 기업·자산·포트폴리오 단위 ESG 분석 도구를 제공
 - **(모건스탠리)** 자체적으로 지속가능공시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업무를 검토 및 실행하고 있으며 '20년부터 TCFD(기후변화 재무 정보공개 전담 협의체)관련 공시자료 발행

- 2030년까지 低탄소 프로젝트 자금조달액 목표를 2,500억달러로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년 한해 650억달러 규모의 녹색·소셜·지속가능 채권 발행 및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을 위해 알파벳社 57.5억달러 규모 소셜채권 발행 등
- 150개 이상의 ESG 투자전략 및 MP(Model Portfolio)를 제공하는 자산관리 플랫폼 IIP(Investing with Impact)를 개발, 총 8억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이 IIP 플랫폼 활용 중('20)
- (JP모간) JP 모간은 '20년까지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위해 2,000억달러를 조달하였으며 '30년까지 25조달러를 추가로 조달하기로 목표 설정
- 그린빌딩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첫 그린본드 출시(1조원 규모, '20) 및 ESG 요소를 우선순위로 하는 퀀트분석도구인 ESGQ를 개발, 종합지수 성과를 능가하는 주식을 선정하여 리서치 등으로 활용
- (블랙록) '20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최우선순위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지목했으며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기후재무 정보공개(TCFD)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
- '20년 블랙록은 5,600여개의 전체 액티브 및 자문 전략 펀드에 대해 ESG 통합운용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규모 약 27조 달러)
- 리스크관리·투자 기술 플랫폼인 'Aladdin'에 ESG 데이터 탑재 및 탄소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가 가능한 'Carbon Beta' 플랫폼 등을 제작

□ (결론 및 시사점)

- (해외 IB·운용사 시사점) 해외 업체는 사내 '지속가능'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ESG 업무가 회사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국내 금융투자회사들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 有

I 국내외 ESG 현황 및 조사배경

- **(글로벌 현황)**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는 '12년 13조3천억달러에서 '20년 40조5천억달러로 8년 새 3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ESG 펀드 규모는 '20년 하반기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 선 것으로 추정되며 '20년말 기준 녹색채권 글로벌 누적 발행총액은 1조 달러 돌파**

- **(국내 현황)** **코로나19와 각종 환경문제가 전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 ESG 요소 중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각국의 정부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정부의 저탄소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8)'** 유치 추진
 - * '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한국 최초 환경 분야 정상회의며 핵심 의제는 '탄소 중립'으로, '21년은 '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한 '파리협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해임
 - 금융위에서도 **'21년 녹색금융추진계획(안)**을 발표하여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를 이행하겠다고 발표**

- **(조사 배경)** **전세계적으로 ESG는 정부 주도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와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ESG 경영전략 추진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임**
 -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운용사, ESG 관련 국제 기구에서 ESG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국내 시장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II 민간 금융투자회사의 ESG 업무 현황

- (美 IB ESG 관련 업무) 美 주요 IB의 ESG 금융상품·서비스 유형은 크게 채권 발행·주관·인수, 자산관리(일임), 프로젝트 금융 등으로 구분
 - 골드만삭스는 '30년까지 7,500억달러 지속가능 금융 등에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모건스탠리는 '30년까지 2,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여 低탄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 JP모간은 '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투자를 위해 2.5조 달러를 조달 하기로 결정

【ESG 금융상품·서비스 유형】

구 분	세부 상품·서비스
채권 발행·주관·인수	재해채권, 녹색채권, 사회채권 발행·인수 등
자산관리(일임)	ESG 자산관리 플랫폼, 개인·법인 일임포트폴리오 구성 등
PF·PI	도시재생, 교육, 청정에너지 개발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직접투자
기타	ESG리서치, 지수개발, M&A자문, tax equity financing(T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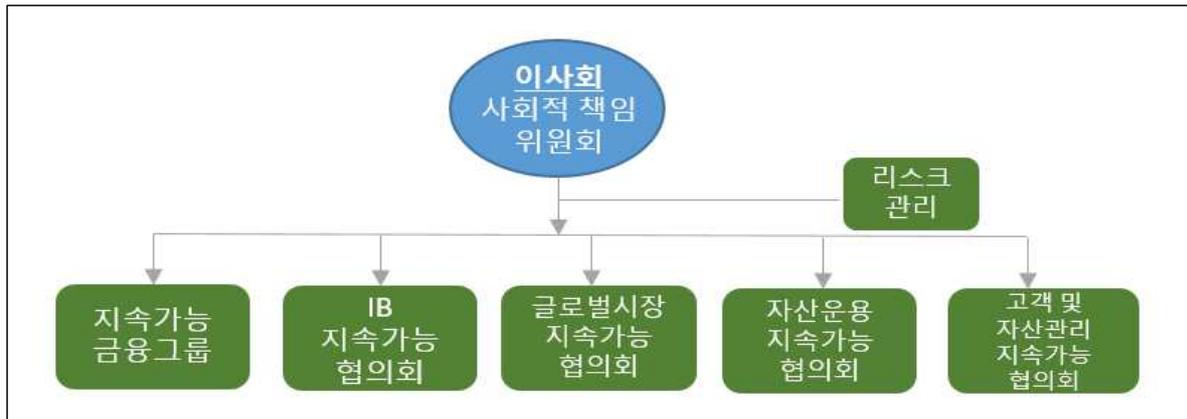
- (자산운용사의 ESG 관련업무) ESG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ESG 상장지수펀드(ETF), 민관인프라펀드, 기후·친환경 펀드, 그린본드 등을 설립·운용
 - UBS, 피델리티 등 30여개의 주요 글로벌 운용사들은 '20년12월 '탄소 순(純)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 시킴
 - * 글로벌 자산운용사 240개가 가입한 '기후변화를 위한 기관투자자그룹(IIGCC)는 2051년까지 탄소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저탄소 기업,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오염물질 배출 기업 비중은 줄이는 투자방침 제안
- (ESG 상품 수익률) 지난 10년간 MSCI 전 세계 지수인 'MSCI ACWI 지수'에 비해 해당 지수에 ESG 전략을 추가한'MSCI ACWI ESG 리더스' 지수 수익률이 연평균 0.5%포인트 웃돈 것으로 나타남

1. 증권사

1. 골드만삭스(IB)

- (ESG 경영 목표 및 연혁) 골드만 삭스(GS)는 2030년까지 7,500억 달러(843조원)를 지속가능금융,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0년 한해만 1,560억달러를 지속가능 금융에 활용하였음
- GS는 금융회사 중에서 ESG 경영 도입에 선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요 IB 중 최초로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에 부합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ESG 경영을 하고 있음
- 최근 GS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년부터 고객 기업의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이 없는 경우 IPO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움

【GS의 ESG업무 조직구조】



* GS Sustainability Report 2020

- GS는 그린본드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ESG 관련 M&A 자문, ESG 기업·산업 리서치, ESG투자 전략 개발, ESG 포트폴리오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테일 고객을 위한 ESG 펀드·ETF·일임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제공

【ESG업무 연혁】

연 도	세부 상품·서비스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ban 투자 그룹(도시투자그룹)* 업무 시작 * 빈민가에 아파트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 수익을 동시에 낼 수 있는 프로젝트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그룹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SIB)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취학 전 무상교육 등에 투자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은행 중 거의 최초로 '환경 정책 체계'* 개발 * GS의 주요 ESG 경영 원칙으로 재무적인 요소와 같이 환경 및 사회적 요소를 중요한 리스크로 간주하여 사업 판단에 반영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 SUSTAIN*을 시작하여 기업 장기 평가에 있어 ESG 기준을 기본 분석에 반영 하도록 함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탄력 업무 정책, 폐기물 재활용, 공급망 내 노동력 관리 등 73개 환경·사회 요인을 기반으로 구축한 기업별 등급 체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 Women initiative*(1만 여성 이니셔티브) 시작 * 여성 기업가에게 교육, 멘토링 및 투자자를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젝트 협약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10,000 small business initiative 시작 - '2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 이행 시작 (실제로 '15년에 완료)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및 투자목표 선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채권업무 확대(21세기 녹색 채권, 청정에너지 시장 유동화, 라틴아메리카 신재생 프로젝트 녹색채권)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중립을 투자은행으로서 최초로 달성 - '25년까지 지켜야할 친환경 운영 목표*(operational impact goal) 발표 * 회사 에너지 소비율 20% 감량, 종이사용량 30% 감량, 플라스틱 물병 및 쓰레기 사용 금지 등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까지 지켜야할 operational goal 계획 발표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內 지속가능 금융 그룹을 결성하여 '30년까지 7,500달러를 지속가능금융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에 계획한 operational impact goal 달성(소사업장 에너지수요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 흑인 및 라틴아메리카 계열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프로젝트 도입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인여성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100억달러 투자방침 결정 - 2050년까지 탄소 순(純)배출 제로 공약 - 지속가능 채권 발행(8억달러 규모)

□ (ESG 금융상품 · 서비스)

○ (사업부문별 기능)

- GS의 'IB부문' 부문에서는 그린본드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ESG 관련 M&A 자문, ESG 기업 및 산업 리서치 등을 진행
- 'Global Markets(브로커리지)' 부문에서는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ESG 투자 전략 개발, ESG 투자자산 시장조성, ESG 포트폴리오 분석 도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
- 'Consumer & Wealth Mgmt(자산관리)' 부문에서는 리테일 고객 대상 ESG펀드, ESG-ETF, 일임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제공

○ (채권 발행주관·인수) GS는 '20년 그린채권을 약 1조달러 발행했으며 '21년 초에는 지속가능채권*을 약 8억달러 발행

* SLB(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ESG 핵심성과지표(KPI)를 선정하여 이에 기반한 지속가능성과목표치(SPT)를 설정하여 발행기업이 SPT를 달성할 경우 낮은 이자율이 유지되고, 달성 못할 경우 이자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IB의 기능과 ESG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금조달 솔루션

- 구글의 모회사인 'Alphabet Inc.'의 최초 지속가능채권을 57억달러 규모로 발행('20.8)
- 미국의 주요 전기·가스 공급회사인 'Southern Company'의 지속가능채권을 약 7.4억달러이상 발행('21.2)
- 코로나19 위기 완화를 위해 UN지속가능발전 목표(SDG)을 위한 세계은행(WB) 및 유럽연합(EU) 등에 총 660억달러 규모의 자금조달 업무 지원

-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인 'Array Technologies'의 12억달러 규모의 IPO 진행('20.10) 및 태양광 관련 부품 제조 업체 'Shoals Technologies'의 22억달러 규모 IPO 진행('21.1)
- (일임) GS는 국제 자연보호협회인 TNC(The Nature Conservancy)와 24조원 규모의 자선기금 운용 관련 일임계약 체결
- GS는 기후변화 및 자연보호 분야 리서치를 별도 진행하여 사적투자 대상 선정(신재생에너지, 도심전기버스 개발 등) 및 사모증권, 사모사채, 실물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업무 수행
- (PF·PI) 뉴욕 퀸즈 지역 혼합 용도 혼합소득층 커뮤니티 개발관련 토지개발 및 인수에 대한 파이낸싱(6천억원)/브루클린 해군조선소를 제조센터로 재생하는 사업에 대해 약 4천억원 투자

□ (기타)

- (리서치) 글로벌 ESG 리서치팀(GS Sustain)을 구성하여 총 4,000개의 글로벌 기업에 대해 ESG 요건을 적용한 분석 시행
- (자문) 'Marquee'라는 ESG 고객 포털을 출시('20.10)하여 기관투자자 고객에게 기업, 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ESG 분석 도구를 제공
 - * 'Marcus'라는 리테일 고객 대상 ESG 포털은 '21.2 출시
- (직원들의 다양성 존중) '19년 GS에서는 직원들의 다양성을 키워 주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여 '20년에는 회사 부서장을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이 맡도록 하고 흑인 애널리스트 고용을 늘리기로 함
 - * '20년 신입직원의 인종 비율 현황 : 백인(37%), 아시아계(31%), 히스패닉·라틴계(17%), 흑인(11%), 기타(4%)

2. 모건스탠리

- (ESG 경영 목표 및 연혁) 모건스탠리(MS)는 자체적으로 지속가능공시위원회(Sustainability Disclosure Committee)를 통해 ESG 업무를 계획·실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업무를 일찍 시작한 IB로 평가 받고 있음
- (TCFD) '20년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관련 공시자료 발행 시작

【ESG업무 연혁】

연 도	세부 상품·서비스
2009	- MS 內 국제 지속가능 금융 그룹(Global Sustainable Finance Group) 설립
2013	- 제임스 고먼(당시 MS 회장, 現 뉴욕연방준비은행 이사)이 지속가능 투자 단체 (Institute for Sustainable Investing) 설립 - 그린본드 발행 시작
2017	- 지속가능 최고 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최초 임명
2018	- 2030년까지 低탄소 프로젝트 자금조달액 2,500억달러 목표 발표
2019	- 플라스틱 폐기물 해소를 위한 결의안 채택
2020	- 2050년까지 탄소 순(純)배출 제로 공약 발표 -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위한 소셜본드 최초 발행

- (기후변화 전략) MS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모든 업무 분야에 있어 이를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진행

低 탄소 경제를 위한 업무 진행	기후 리스크	기후 회복력을 위한 회사운영(안)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탄소 배출제로 공약 발표 ▶ 2030년까지 低탄소 프로젝트 자금 조달액 2,500억달러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內 리스크 관리 및 경영 구조에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반영시킴 ▶ 이사회와 리스크 위원회에서 직접 기후리스크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지사의 운영에 있어 탄소 배출제로 적용 ▶ 사무실 운영에 있어 전기 사용의 10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회계 금융 협회(PCAF)의 운영위원회로 활동 ▶ 2020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리포트 제출

□ (ESG 금융상품 · 서비스)

- (채권 발행주관·인수) '20년 한해 650억달러 규모의 녹색·소셜·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소셜 채권으로만 10억달러 규모 발행
 - 코로나19 및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알파벳 57.5억달러 규모 소셜채권을 발행하여 흑인 소상공인 지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활용
 - 화이자의 125억달러 규모 지속가능 채권 발행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백신·약물 제공 등 각종 소셜채권을 발행
 -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의 코카콜라 FEMSA(음료 및 리테일 기업)의 50% 상품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도록 7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
 - 미국 VF Corporation(의류·신발社)의 상품 중 50% 이상을 재활용 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5억달러 규모 채권발행 상장주관 투자은행으로 활약
- (자산관리·일임) 150개 이상의 ESG 투자전략 및 MP(Model Portfolio)를 제공하는 자산관리 플랫폼 IIP(Investing with Impact)를 개발, 총 8억달러 규모('20기준)의 고객 자산이 IIP 플랫폼 활용 중
 - 또한, IQ(Impact Quotient)를 개발하여 고객들이 자신의 ESG 관련 투자 목표와 실제 투자되고 있는 포트폴리오·수익률이 호환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기능 제공

【투자관리(MSIM) 모델】

	방식	세부 내용
일반 펀드	ESG 통합	- 투자 프로세스에 ESG를 고려하여 관련 리서치, 벨류에이션 및 포트폴리오 제작에 통합(주식, 채권, 대체상품 등)
	배제	- 특정 가치, 규범 및 섹터에 기반해 배제할 종목 선정(투자자의 1:1 맞춤형 상품인 Separately Managed Account<SMA> 등)
ESG 펀드	지속가능	- 지속가능 테마투자(ESG Best In Class : 전략펀드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높은 ESG 등급의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펀드 등)
	임팩트 투자	- 측정가능한 사회·환경 등의 임팩트 투자가 가능한 펀드(탄소중립관련 펀드, EU 분류체계 관련 펀드 등)

- (PF·PI)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풍력, 태양력)의 장기 헤지거래 계약 체결(750메가와트 규모) / 전기차충전소업체인 ChargePoint의 late-stage 펀딩(2.6천억원) ('20) 등 업무수행

□ (기타)

- (직원들의 다양성 존중) 이사회 29%, 전세계 임원의 26%, 전세계 직원의 39%가 여성이며 임원의 24%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됨('20년 기준)
- (지속가능 연구소) 지속가능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연구 시설을 운영하여 학생들, 일반인 등에게 ESG 관련 내용 전파
-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ESG 관련 리스크를 담당하는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부서(ESRM)에서 모든 ESG 관련 투자 거래, 정책 등의 리스크를 스크리닝하고 직원들 대상 ESG 리스크 관련 교육 진행

3. JP 모간

- (ESG 경영 목표 및 연혁) JP 모간은 '2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위해 2,000억달러를 조달하였으며 '30년까지 25조달러를 추가 조달하기로 목표 설정

【JP모간의 ESG업무 분류】

분류	세부 내용
환경(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금융 솔루션 개발 및 환경에 긍정적 임팩트를 주는 투자 - 환경 및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환경보호를 생각하는 기업 운영 체제) - 지속가능 환경을 위해 타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사회(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최고의 이익을 위한 업무 진행 및 인권관련 리스크 관리 - 긍정적 사회적 임팩트를 위한 금융 솔루션 개발 및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 포착 - 인적자원에 투자(다양성, 평등성 및 포용성을 지향) 및 고객 금융 건전성 강화
지배구조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컨트롤, 투명성, 윤리적 행동의 강화 - 이사회의 효율적인 리더십 및 관리, 정치적공공정책 참여, 기밀사항사이버보안 보호강화

【ESG업무 연혁】

연 도	세부 상품·서비스
2005	- 환경 및 사회 투자 방침(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Framework) 발표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책임 리포트(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발표 - '친환경(그린)'은행 지사를 콜로라도 덴버에 설립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그린빌딩인증(LEED Platinum Certification)* *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그린 빌딩 인증 시스템으로 미국의 그린빌딩협회(USGBC)가 개발 - '2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본드 원칙(Green Bond Principles)* 공동 작성 * 세계시장협회(IMA)가 세계은행, بانک오브아메리카, JP모건 등 주요 은행과 협력하여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그린본드 발행시 많이 참고되고 있는 원칙
2015	- ESG 리포트 발표(자체적인 리포트로 '15년부터 매년 발표)
2016	- JP의 쉐지사에 LED 조명설치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까지 쉐사업장의 에너지수요를 1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발표 - '25년까지 청정에너지 자금조달액 목표 : 226조원
2019	- TCFD에 의거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리포트 발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및 UN SDG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00억달러 활용 발표 - 그린빌딩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첫 그린본드 출시 : 1조원 규모 - 인종 평등을 위해 약 300억달러 조달 - 2050년까지 탄소 순(純)배출 제로 공약 이행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투자를 위해 2.5조달러를 '30년까지 조달하기로 결정

□ (ESG 금융상품 · 서비스)

- (채권 발행주관·인수) '20년 한해동안 237억달러 규모의 그린·소셜·지속가능 채권을 발행·인수하였으며 JP모간 그룹 자체적으로 10억달러 규모의 그린 채권을 발행하여 그린프로젝트 등에 투자
- (자금조달·IPO)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축을 수행하는 올레트(ALLETE)의 풍력·태양광 발전소에 57억달러 자금조달('20) 및 태양광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어레이(ARRAY) 테크놀로지스의 IPO 진행
- (자산관리·일임) 113개의 ESG 투자전략(주식·채권·대체투자·혼합자산 등) 활용, 약 126억달러('20) 규모의 자산을 관리 중
- (PI) 자사의 CSR(사회공헌직무) 프로젝트인 Advancing Cities에 5억달러를 투자하여 전세계 도시에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5년('18~'23) 프로젝트로 파리, 디트로이트, 시카고, 워싱턴에 집중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 또한, 3천억원은 커뮤니티개발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사업, 저소득층 주거개발, 비영리기관의 고용양성프로그램 개발 등에 저비용 장기대출 성격으로 활용

□ (기타)

- (리서치) ESG 요소를 우선순위로 하는 퀀트분석도구인 ESGQ를 개발, 종합지수 성과를 증가하는 주식을 선정하여 리서치 등으로 활용
- (지수개발) ESG 요소를 활용한 신흥시장 채권지수인 JP Morgan ESG(JESG) 개발

○ (Tax Equity Financing) 풍력·태양력·지열 프로젝트 관련 25조원 규모의 tax equity financing* 주선업무 진행

* 미국의 독특한 투자 형태로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시 그것을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투자자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현금흐름 이외에도 정부의 세액공제 등 credit을 회수 할 수 있음

○ (기후리스크 관리) JP모건의 기후리스크 모델

분류	원인	리스크의 영향	JP모건의 리스크 분류
Transition Risk (전환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위험 · 기술혁신 · 시장선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수요/가격 · 금융비용 · 거시경제학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위험 · 신용 및 투자 위험 · 마켓 위험 · 운영리스크
Physical Risk (물리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위험 (홍수, 폭풍, 산불) · 만성적 위험 (해수면 상승, 물부족, 지구 온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업의 경쟁력 · 평판의 손상/소송위험 · 사회경제적 영향 · 물리적 영향 · 사업 방해 	

2 운용사

1. 블랙록

- (ESG 경영 현황) 블랙록은 '20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최우선순위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지목하는 등 ESG를 업무 전반에 적용하고 있으며, 액티브 펀드에 ESG 요소를 반영
 -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기후재무정보공개(TCFD) 권고사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권 행사
 - 자사포트폴리오 중 사업모델에 기후 리스크 미반영 기업 244개 명단 공개했으며 '볼보'의 경우 ESG 공시 미비를 이유로 이사회 의장 연임을 반대하기도 하였음
 - (ESG 투자 원칙) 블랙록은 ESG업무를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 ① 투자과정(Investment Process) : 투자 과정에 있어 ESG의 통합을 의미하며 '20년도부터 투자관련 부서들은 ESG 요소의 활용을 강화
 - 블랙록의 직원들은 액티브 펀드 및 자문관련 전략에 있어
 - a) 각 전략에 대한 ESG 편입 업무 설명이 있어야하며,
 - b)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주요 ESG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 c) 투자 관련 팀들은 각 투자 포트폴리오에 ESG관련 고려사항이 어떻게 반영 됐는지 근거 자료 제시 필수
- * 또한, 블랙록의 RQA(Risk & Quantitative Analysis) 팀은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관련 ESG 리스크를 검토

- ② 자체 시스템에 ESG 요소 탑재(Material insights) : 리스크관리·투자 기술 플랫폼인 'Aladdin'에 ESG 데이터를 탑재, 탄소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가 가능한 'Carbon Beta' 플랫폼 등을 제작하여 투자자들이 주요 ESG 관련 사항들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제공
 - (Aladdin) 블랙록의 투자자들은 Aladdin을 통해 실질적인 기후리스크에 대한 ESG 관련 점수와 순위,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Carbon Beta) 포트폴리오 운영자들의 여러 탄소 가격 설정 시나리오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치화한 결과 제공
- ③ ESG 공시 관련 투명성 강화 : ESG 리스크를 줄이고자 펀드 공시 내용에 ESG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블랙록의 iShares 펀드 등의 ESG 점수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재
- (내부 ESG업무 관리·감독) 블랙록은 社内 국제이사회(GEC)의 분과 위원회에서 「지속가능투자팀(BSI)」과 합동으로 ESG 업무 관련 기준 및 방안을 만들고 회사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 (ESG 금융상품·서비스) '20년 블랙록은 5,600여개의 전체 액티브 및 자문 전략 펀드에 대해 ESG 통합운용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 (규모 2.7조 달러)
- (ESG 리스크 감소) 모든 액티브 포트폴리오에서 매출의 25% 이상이 발전용 석탄 생산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회수

- (지속가능성 특성 투명성 향상) 1,700개 이상의 모든 리테일 펀드 및 iShares ETF에 대해 MSCI에서 제공하는 7가지 지속가능성 특성 기준 평가자료 공개
- (포트폴리오에 ESG 구성요소 활용) 전세계 블랙록의 모든 상품 전략에 ESG를 통합시키고 '21년 중반까지 target-date fund의 ESG에 대한 투자노출을 50%로 늘리고 있음
- (사모펀드) USD51억 규모로 신재생 에너지·천연가스 등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인프라 자산에 투자

2. 뱅가드

- (ESG 경영 현황) 뱅가드는 블랙록에 비해 ESG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ESG펀드 인력 확충 및 ESG 펀드 설정에 박차
- '21.3 미국시장에 ESG 상품팀을 구성하였으며 유럽 법인에는 ESG 전략 책임자가 ESG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에 ESG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 (ESG 금융상품 · 서비스) 뱅가드의 ESG ETF는 5개*이며 ESG 투자는 초기상태로 ESG 상품 개발에 앞서 관련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
 - * ① ESG Int'l Stock ETF, ② ESG US Corporate Bond ETF, ③ ESG U.S. Stock ETF, ④ FTSE Social Index Fund Admiral Shares, ⑤ Global ESG Select Stock Fund Admiral Shares

3. UBS

- **(ESG 경영 현황)** UBS는 쉰 세계 고객에게 1순위로 ESG 투자를 권유하고 있으며 유럽 금통투자회사답게 ESG 관련 업무를 일찍 시작
 - 유럽은 '21.3월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SFDR)을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EU)의 금융기관은 금융 상품이 지속 가능성 리스크를 고려하는지 공시해야함

【UBS의 ESG업무 연혁 및 계획】

연 도	세부 상품·서비스
1989	- 스위스 은행중 환경 담당 임원 첫 취임
1992	-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서명
1995	- 스위스 기업 고객을 위한 최초의 환경 보고서 발간 및 환경 신용 평가 절차 도입
2000	- UN 글로벌 컴팩트 초기 서명 기관
2001	- 社内 책임위원회 설치
2002	-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초기 서명 기관
2021	- 글로벌 자산관리부에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유지 - 지역 사회 투자와 고객 자선 활동을 통해 1억5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380만 수혜자의 삶을 개선
2022	- TFCDE에 의거한 리포트 제출 예정
2023	- PRI 기준 전격 도입 예정
2025	-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투자 자산 700억달러 추가 예정 - 10억달러를 모금하여 2,600만 수혜자를 위해 커뮤니티 투자 및 자선활동 - 30%의 이사급 이상 직위를 여성이 차지하도록 목표 설정
2050	- 자산운용업의 탄소 순(純)배출 제로 달성 목표

* 참고: UBS를 포함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전력공사에 북베트남,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사업 참여 철회를 요구하였음 ('20.3)

□ (ESG 금융상품 · 서비스) UBS는 '20년말 기준 약 38개의 ESG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속가능·녹색 채권 발행, 지속가능연계 대출, 탄소배출 관련 선물, 대체에너지 관련 SME 지원 사업 등 방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Multi Asset Fund(ESG 업무 강화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 Global Gender Equality(지속가능 업무 및 남녀 평등 업무 강화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 등의 ESG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모·공모 펀드에 편입 등

○ 코로나19 사태에서 UBS 크레딧 리서치 부문 Wacker 대표는 ESG 관련 채권을 투자의 '방어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했으며 ESG 관련 채권은 스프레드가 일반 채권에 비해 적어 변동이 큰 시장에서 다소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III 글로벌 ESG 관련기관 · 단체 · 평가기관 분석*

* 사회적가치연구원 ESG 핸드북 일부 참고

1. 글로벌 공조기관

1. PRI (책임투자원칙)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PRI는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이니셔티브로 '21년1월 기준 3,615곳이 서명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현재 11개사가 가입되어 있음
- PRI의 서명기관이 되면, 매년 책임투자 원칙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PRI는 A+부터 E단계로 점수를 주고 있으며 보고서가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면 2년 재평가 기회를 주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면 탈퇴조치
- PRI의 최근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서명기관들은 모든 관리자 산의 최소 절반 이상에 대해 책임투자 정책을 시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할 담당직원 및 임원레벨의 감독책임자가 있어야함

2.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TCFD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기업의 재무적 영향 공개를 위한 프레임워크 및 권고안을 만들기 위한 국제기구
-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설립한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15년 발족한 TF로 '17년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TCFD' 권고안을 발표

- '21년 1월 기준 전 세계 77개국 1,700개 이상 기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영국·뉴질랜드는 TCFD 권고안 기준 공시 의무화 방침을 발표
- 한국은 현재까지 환경부·한국거래소·주요 금융지주사·포스코·SK 이노베이션 등 민간기업 약 10곳이 지지를 선언하였음

【TCFD 기후변화 관련 권고사항】

핵심요소		세부 상품·서비스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a.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위험요인에 대한 이사회와 감독 관련 사항을 서술할 것 b.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할 것
경영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회계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	a.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조직이 직면하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위험 요인을 공시할 것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 c.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조직차원 전략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할 것
위험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a.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조직의 인지, 평가 관련 프로세스 공시 할 것 b.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조직 차원의 프로세스를 설명할 것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 관련 인지, 평가, 대응 프로세스가 다른 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되는지 설명할 것
측정기준 및 목표	해당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 및 감축 목표	a. 조직 전략과 위험관리와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측정 방식에 대해 공시할 것 b. 온실가스의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과 그에 따른 위험을 공시할 것,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타간접배출(Scope 3)도 공시 c. 기후변화 관련 기회·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조직 차원의 목표와 성과를 설명할 것

* 자본시장연구원「영국의 기후관련 정보 공시 규정 강화 및 이슈」에서 발췌

3. UNGC (UN글로벌 콤팩트)

* UN Global Compact

- UNGC는 '00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 제시
 - 회원사들이 해당 원칙들을 기업 운영 및 경영전략에 내재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원식 향상에 동참하도록 권장
 - 현재 전세계 157개국 14,0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가입과 참여를 담당
 - 회원사로 가입하면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등 일정한 혜택이 주어지며, 매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에 이행보고서(COP)나 참여보고서(COE)를 제출해야함

4. UNEP FI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 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 UNEP FI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91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국제 파트너십
 - '21년1월기준 전 세계 378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성장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약속·경영지침·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분야 내 19개 항목으로 구성

- UNEP FI 참여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 선언에 대한 동의 의사를 사무국에 전달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참여 가능
- * 현재 가입된 국내 기업: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산업은행, 대구은행, 한국자산신탁, 삼성생명·삼성화재보험, 신한생명, DB생명

2. 투자자 이니셔티브

1. Climate Action 100+ (기후행동 100+)

- 파리기후변화협약 달성을 위해 '17년 결성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니셔티브로 블랙록·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545개 이상의 투자자들이 서명하였으며 이들의 총 자산규모는 52조 달러임
- CA100+의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기후 관련 금융공시 강화 요구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
- CA100+은 또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 세계 167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 '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에 도달하는 방안과 계획 수립을 요구했음
 - * 엑손모빌, BP, 아람코, 로열더치셸, 코카콜라, 포드, GM, 월마트 및 한국의 한전,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2. GSIA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 GSIA는 지속가능 투자를 지향하는 단체로 '14년 유럽·호주·캐나다·영국·미국·일본·네덜란드의 사회책임투자포럼들이 함께 설립하여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 글로벌지속 가능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는 조직

○ GSIA는 ESG 투자 방법론을 7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으며 최근에는 투자목적 설계 포트폴리오 비중 선정 등 투자 의사 결정 전반에 ESG 요소를 적용하는 'ESG 통합(integration)' 방식이 각광 받는 중

* '네거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규범 기반 스크리닝', 'ESG 통합', '지속가능 테마 투자',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기업관려활동 및 주주행동'

○ '12년부터 격년으로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규모를 발표하는 GSIR(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를 발간하고 있음

* 전세계 지속가능투자 규모: '12년 13.2조 달러 → '18년 30.7조 달러 → '20년 상반기 40.5조 달러

3. AIGCC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

*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글로벌 연기금 및 운용사의 협의체로 '16년 기후 변화 및 탄소배출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고자 만들어져 아태 지역 국가들의 투자관련 기업들의 가입을 진행

- 세계 기후변화 투자자 연합체(GIC)*의 아태지역 담당으로
 - * GIC(Global Investor Coalition on Climate Change)는 전세계 투자관련 기관들의 기후변화 관련 연합체로서 AIGCC 외에 ① 유럽 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그룹(IGCC,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② 북미지역은 '미국 환경단체 (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③ 호주·뉴질랜드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 투자자 그룹(IGCC, Institutional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이 담당
- GIC는 PRI, UNEP FI와도 기후변화 관련 투자 업무를 같이 협업하고 있으며 CA100+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50여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의 운용자산(AUM)은 총 9조달러 이상
 - 주요 회원은 호주 최대 연기금인 Australian Super, 블랙록, 알리안츠,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이 있음
 - * 한화자산운용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도 가입되어 있음
 - 국민연금공단이 '20.11에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비슷한 시기에 AIGCC에 가입하며 국내 언론의 관심을 받음

3. ESG 공시보고서 기준 설정 기구

1. SASB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 SASB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할 기업의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1년 설립 되었음

- 투자자들에게 비교 가능한 비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ESG 요소를 중심으로 간결한 세부 지침이 만들어져 투자자들이 빠르게 수용 중이며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서로는 GRI와 함께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음
-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와의 합병을 통해 '21년 중반까지 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여 종합적인 비재무정보 공시 표준을 제공할 예정

2. GRI (글로벌 지속가능보고서 이니셔티브)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비영리기구로, '97년 미국의 환경단체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와 유엔환경계획(UNEP)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
- GRI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으로 지난 20년 동안 G1(GRI Guidelines), G2~G4로 이어지며 확대 및 개선되어 왔음
- GRI Standards는 경제 분야 6개 주제, 환경 분야 8개 주제, 사회 분야 19개 주제 등 광범위한 주제별 영향 보고를 위한 세부 지침과 글로벌 우수사례를 제시
 - 보고 대상은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15,402개 조직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3. IIRC (국제통합보고위원회)

*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 IIRC는 기업 재무정보와 ESG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제정하고자 **지속가능성회계프로젝트** (The Prince's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 A4S)와 **국제회계사연맹(IFA)**, **GRI**에 의해 '10년에 설립된 조직
- IIRC에서는 '13년 재무 및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합 (Integrated Reporting)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모든 유형의 자본에 대한 **회계책임**(Accountability)과 **수탁책임**(Stewardship)을 높였음
- 현재 네슬레, 바스프, 다농 등 70개국 2,500개 이상의 기업이 통합보고를 진행 중

4. CDSB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 (CDSB)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는 '07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컨소시엄 조직임
-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ERES(미국 환경단체), Climate Group(기후그룹), WBCSD,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세계경제포럼, WRI(세계자원연구소) 등이 이사회를 구성
- 현재 32개국 374 기업이 CDSB 프레임워크를 사용 중이며 기후변화 전략, 위험과 기회 요소,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 정보를 엄격하게 보고

- '20.9 CDSB, GRI, SASB, IIRC, CDP 등 주요 5개 기관이 협력해 비재무정보 공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 '20.12에는 5개 기관 표준 및 프레임워크의 특정 구성요소와 TCFD 권고사항을 함께 분석하여 통합된 글로벌 표준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

5. ICGN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 ICGN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를 위해 '95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
- ICGN은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관행에 대한 연구 수행 및 모범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 등의 업무를 진행
- '16년 도입한 국내 스투어드십 코드도 ICGN의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세계 각국의 연기금 등의 주요 글로벌 금융사들도 회원사들로 참여
 - * 前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인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 교수가 '19년 ICGN 이사로 선임돼 6년 임기로 활동 중

4. ESG관련 데이터 제공 기관

1. MSCI

- '99년부터 ESG 평가를 제공해왔으며, 초기 ESG 분야를 개척한 RiskMetrics, Innovest, KLD 등을 인수합병해서 '11년부터 ESG 리서치를 독자적으로 제공

- ESG 평가는 공개된 기업 정보, 정부 DB, 매크로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시하며, 피평가기업은 정보 검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ESG 영역별 10개 주제*, 35개 핵심이슈를 평가하여 AAA~CCC의 7개 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부여하며 거버넌스 평가에 가중치가 부여되며, 전체 평가등급 외에 ESG 영역별 등급도 별도로 부여
 - * 환경(기후변화·자연자본·오염 및 폐기물·환경 기회), 사회(인적자원·제품 책임·이해관계자 반대·사회적 기회),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기업행동)

2. S&P

- 미국의 S&P Dow Jones(금융정보업체)와 스위스 RobecoSAM(지속가능경영 평가사)는 '99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를 개발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
 - 기업이 설문지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대개 80~120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해 가중치를 부여
 - 평가 결과 상위 10%는 대상 기업에 따라 DJSI 월드 지수, 아시아·태평양 지수, 코리아 지수 등에 편입됨
 - * 국내에서는 매년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결과를 발표하며, '20년 월드 지수에는 국내 기업 17개사가 편입

3. FTSE Russel

- '01년 ESG 평가를 바탕으로 한 'FTSE4Good'지수로 시작하여 DJSI의 S&P500 ESG 지수, MSCI의 ESG Leaders 지수와 함께 3대 ESG 지수로 꼽히며 유럽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분류

- 사회책임투자(SRI) 지수의 하나로 담배·무기·석탄 등 일부 산업은 피평가 기업에서 제외하며 현재 14개 주제*별로 300개 이상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기업은 약 30개社('20.9기준)

* 환경(생물다양성·기후변화·공급망·오염 및 자원·물안보), 사회(근로기준·공급망·인권과 지역사회·건강과 안전·소비자 책임), 거버넌스(세금투명성·리스크관리·기업지배구조·반부패)

4. Bloomberg

- '블룸버그'는 10년 이상 전 세계 기업의 ESG 공시 데이터를 제공해 왔으며, '20년 8월부터는 ESG Score 서비스를 시작
-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의 제휴를 통해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기업의 탄소발자국, 에너지 사용량 등을 조회할 수 있음

5. CDP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Carbon Disclosure Project

- '00년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로 전세계 약 9,600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경영 관련 공시정보를 매년 분석해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 제공
- 평가 결과는 A~D 등급으로(기후변화·수자원·산림자원 분야), 데이터가 미공개이거나 부족해 평가가 불가능한 기업은 F등급을 부여
 - * '20년 평가 기준 삼성전기, 신한금융그룹 등 국내 기업 7개사가 A 등급을 받았음
- '20년 약 4,000개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는 온도평가(temperature rating)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위험을 투자자들이 더 잘 예측 및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IV

시사점

- **(ESG 현황)**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정부 차원의 저탄소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 금융위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
 - 이에 따라 해외 주요 IB·운용사의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상품 출시, 직원 관리, 지역사회 발전 등의 ESG 관련 업무 등을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분야의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
 - **(해외 IB·운용사 시사점)** 사내 '지속가능'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ESG 업무가 회사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ESG 관련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 하고 있음
- 국내 금융투자회사들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 有